

[성가대용]

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화답송[1월 1일]

시편 67(66), 2- 3. 5. 6과 8

(후렴)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- 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- 서.

[illegible]

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-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 소 - 서.

겨레들이 기뻐하 고 - 환호하 리 이 다.

하느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 모든 곳이
복을 내리시리 라. - 그분을 경외 하 리 - 라.